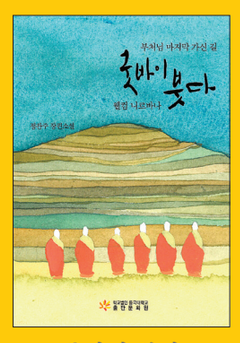
“모든 현상 소멸…여래 없어도 부지런히 정진하라”



굿바이 붓다
정찬주 지음
동국대출판문화원 펴냄
1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소설 〈굿바이 붓다〉는 현대불교신문서 2년동안 대하역사소설 ‘아쇼까’를 연재중인 정찬주 작가가 2011년 출간한 소설 〈니르바나의 미소〉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재출간 한 책이다. 더불어 정 작가의 여러 책에 영국 유학파 출신인 일러스트레이터 정윤경의 그림이 더해져 글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애피타이저 역할을 한다.

소설 〈굿바이 붓다〉의 주 내용은 부처님이 웨살리서 비구들을 불러놓고 당신의 열반을 선언한 뒤부터 꾸쉬나가라 변두리에 있는 살라나무 숲 속에서 눈을 감으실 때까지 시봉하는 제자 아난다와 주고받은 세 달 동안의 이야기다. ‘진리를 깨달아 완전한 존재가 된 부처님이 왜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병들어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는 의문을 갖는다. 그런 아난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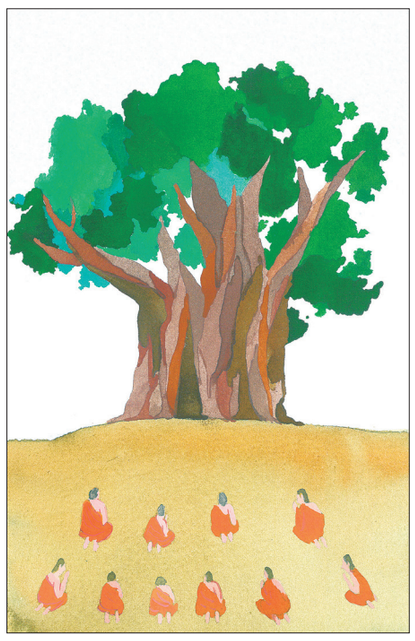
“아난다여, 너는 여래의 열반을 한탄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되느니라. 너에게 항상 말하지 않았더냐. 아무리 사랑하고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하더라고 마침내는 헤어져야할 때가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것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여래가 없더라도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 정진하여 번뇌 없는 경지에 빨리 도달함이 좋으리라.”

부처님의 마지막을 함께한 아난다의 모습은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정찬주 작가가 이 소설을 쓰는 데 계기가 되어준 〈대반열반경〉의 중심 사상은 ‘여래상주 무유변이(如來常住 無有變易)’로 표현되는 여래장(如來藏) 사상이다. ‘여래는 늘 머물고 계시니, 변함이 없다’. 부처님 육신의 죽음이기에 ‘굿바이’라지만, 번뇌를 완벽히 제거하고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음(不二)을 깨달은 자의 떠남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기에 부제를 ‘부처님 마지막 가신길-웰컴 니르바나’라 하였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느낀다. 살아서 무슨 일을 했든 의미가 없으며, 권력도 소용이 없다. 초라한 말로를 비웃던 이들도 머지않아 그렇게 된다. 죽음을 마주한 삶은 이토록 무지하고 무력하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붓다의 죽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답이 이 소설에 면면히 흐른다. 이 책은 부처님의 열반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이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언하고, 어느 도시 변두리 숲에서 조용히 죽음을 준비하던 3개월의 시간에 작가적 상상력을 버무렸다. 정작 죽음을 맞는 본인은 감정과 회한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소설은 평생을 곁에서 모신 아난다의 눈으로 부처님의 임종을 보여주고 해석한다.



2011년 출간 〈니르바나의 미소〉
새롭게 디자인 재편집해 출간해

부처님과 시봉 제자 아난다가
주고받은 마지막 3개월 이야기

부처님 열반 소재의 장편 소설…
제자 눈으로 임종 보여주고 해석

“생사 다르지 않은 깨달은 자의
떠남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다”

따뜻하고 정감있는 일러스트 삽화
글맛 풍성하게 해주는 애피타이저

부처님의 죽음을 ‘열반(涅槃)’으로 높여 부르는 이유는 지고한 초월성 때문이다. 원어 ‘Nirvana(니르바나)’는 불이 다 꺼져 재만 남은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본디 생물학적 사망만이 아니라 번뇌를 완벽하게 제거한 인간을 위한 찬사다. 삶을 붙잡으려는 욕심에서 해탈한 부처님은 죽음을 피하고 싶은 욕심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다. 외려 주변사람들만 난리다.

부처님을 따르던 다수의 중생은 부처님에게 삶 전체를 기댄 사람들이다. 그만큼 절대적 존재와 영영 이별해야 한다는 소식에 다들 오열하고 무서워한다. 그래도 부처님처럼 정각(正覺)을 이룬 아랫사람들은 짐짓 태연하다. 마하까사빠, 사리뿟다, 목갈라나 등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소멸임을 믿는 그들의 표정은 잿빛이다.

반면 부처님이 열반하고 한참 뒤에야 깨달은 아난다의 심리적 충격과 방황은 총천연색으로 어지럽다. 어미 잃은 코흘리개가 연상될 정도다. 다만 그 애도의 진정성이 너무 뜨거워서 함부로 비웃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부처님 걱정에 급히 걷다가 다쳐 발가락이 ‘두꺼비처럼’ 부어오르는데도, 오직 스승의 안위만 생각하는 아난다의 모습은 과연 미련한 존재인 것일까.

저자 정찬주 작가는 초인(超人)보다는 부처님의 인간다움에 우위를 두고 있다. 작가는 후기에서 “부처님은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한 비구들에게 정성을 더 쏟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사람들에게도 연민의 정을 더 주고 있음이 보인다”며 “이 소설을 쓴 나 역시 아난다처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서 부처님의 이와 같은 자비로운 모습에 크게 감동했고 무한한 존경심을 느꼈다”고 술회하고 있다. 즉 끝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감화(感化)라는 말이다. 궁극적으로 부처님 역시 누구보다 인간적인 모습의 사람이었기에 수천 년에 걸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책이다. 고아 출신으로 몸을 파는 유녀(遊女) 암바빨리, 대장장이 쭌다, 장사꾼 뿍꾸사, 무지렁이 시골사람들, 이교도 등등 알고 보면 부처님의 불교는 전혀 불교적이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포교로 할애됐다. 몸이 ‘낡은 수레’처럼 움직이기 힘들었음에도 이들에 대한 애정을 멈추지 않았다. 열반 바로 직전에는 입술을 겨우 달싹일 수 있는 기력으로 진리를 곧질기게 설했다. 마치 참 찐 사랑은 미련해야 하는 것처럼.

이 책의 원제(原題)는 ‘니르바나의 미소’였다. 부처님의 열반과 관련해 다양한 일화와 정서(情緖)들이 담겼다. 열반의 원인으로 새로운 주장도 제기된다. 으레 상한 돼지고기에 의한 식중독을 사인으로 보고 있으나, 저자는 독버섯이 죽였다고 말한다. 쭌다가 부처님을 흠모하는 마음에 최고급 버섯 요리를 공양하려다가 엄청난 사달을 내고 말았다. 사랑은 감정이 아닌 지혜의 영역에 있다는 걸 일러주는 대목이다. ‘왕따’를 주제로 한 독특한 일화도 귀담아 들을 만하다. 부처님과 일가친척이라며 안하무인으로 굴던 마부(馬夫) 찬나를 두고, 부처님은 “찬나를 멀리하라”며 교단에 생애 마지막 명령을 내린다.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떠난 걸 알게 된 순간, 찬나는 황망함에 혼절해버렸다. 최후의 훈시를 그가 어떻게 수용하고 극복해가는 지도 찬찬히 읽어보면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등장인물들은 부처님의 죽음이란 파국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한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며 자신에게도 다가올 죽음을 밀어내거나 외면한다. 죽음이 두려워 울고 떠는 자들은 그와 동일한 크기로 삶이 좋아서 웃고 떠드는 자들이다. 한편으론 생명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이 남의 생명도 정답게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은 아닐지. 깨달아서 목석(木石)이 될 것인가 깨닫지 못해서 인간성을 지킬 것인가. 소설에 묘사되는 부처님의 매우 ‘인간적인’ 죽음 앞에서, 더욱 결정이 망설여지는 문제다.

아라한과를 얻지 못하여 마하까샤빠의 동굴 모임에 거절당한 아난다는 맨 마지막에 합류했다. 삽따빠르니 동굴앞의 절벽위에서 목숨걸고 7일 동안 정진한 끝에 극적으로 아라한과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아난다의 입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에 남게 되었다. 아난다가 먼저 기억해 말하면 모든 비구들이 합송해 인정하는 방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기록해 나간 것이다.

아난다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하나 기억해 냈고, 부처님이 준 누더기를 평생 입고 다닌 마하까샤빠는 총 책임자로서 5백여 아라한 앞에서 부처님 말씀을 단 한마디도 어김없이 남겼다. 그런 귀한 시간들이 없었다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도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 소설도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웰컴 니르바나’ ‘굿바이 붓다’. 붓다의 죽음은 큰 가르침에 목마른 뭇 중생들에게겐 분명 거룩한 감로법문 이였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5 3/9~3/1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살아가는모든순간을기적으로바꾸는틱낫한명상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2	진심직설	보조지눌/원순	법공양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4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5	티벳스승들에게깨달음의길을묻는다면(람림)/증보판*양장	초펠 편역	하늘호수

정찬주 장편소설

지금 이 순간, 다시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굿바이 붓다

웰컴 니르바나

“코로나19 팬데믹, 인간의 이기심이 불러온 인류의 불행”
“혼란과 두려움!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 살아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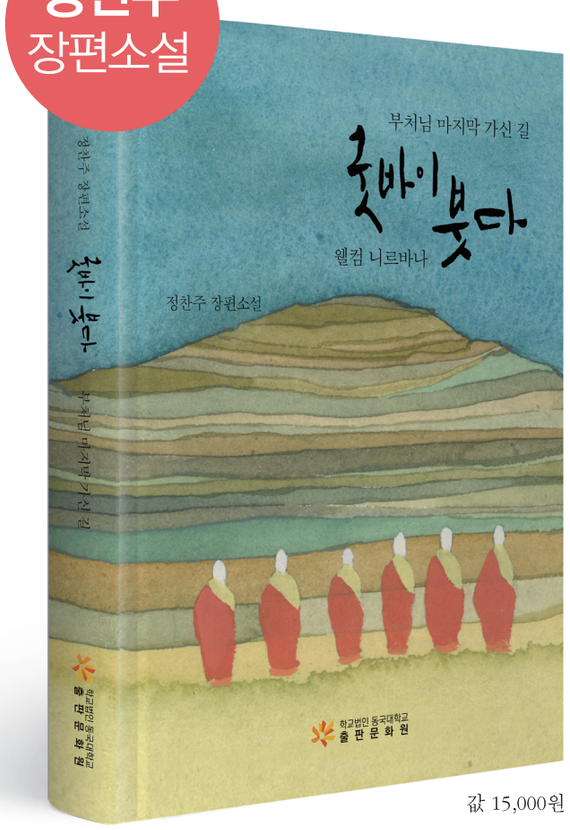


열반을 앞둔 부처님의 간곡한 가르침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소설 〈굿바이 붓다〉는 부처님이 웨살리에서 비구들을 불러놓고 당신의 열반을 선언한 뒤부터 꾸쉬나가라 변두리에 있는 살라나무 숲 속에서 눈을 감으실 때까지 시봉하는 제자 아난다와 주고받은 세 달 동안의 이야기가 주요한 내용이다.

“아난다여, 너는 여래의 열반을 한탄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되느니라. 너에게 항상 말하지 않았더냐. 아무리 사랑하고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침내는 헤어져야 할 때가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것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여래가 없더라도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 정진하여 번뇌 없는 경지에 빨리 도달함이 좋으리라.”

“끝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화(感化)다!”
– 작가 정찬주 –



값 15,000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 http://dgpress.dongguk.edu
전화 02.2264.4714 팩스 02.2268.7851